

동아시아담론에 의한 한국현대소설의 인물연구(試論)

김 정 하

A research for the characters in Korean modern novels by East Asian Studies

Kim, Jung-Ha

1. 서론과 전제

위대한 작품은 작은 통로를 통해서도 큰 세상을 비춰낸다. 작중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주제를 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흔히 독자가 작품의 제목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물만은 오래 기억하는 까닭도 아마 인물이 실체를 지시하는 듯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작중인물은 사건과 행동의 주체인 동시에 당대적 이념의 구현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물론은 주제를 파악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시대에 비추어 본 인물론은 진작부터 있어왔다. 이른바 '시대적 인물상'을 훑아낸 작품론들이 그런 노력의 소산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문학작품을 보는 방식은 문학외적 환원론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제치하의 작품을 민족주의로 조망해낸 작품론들 역시 자기정체성 확인의 선택적 근거로 '민족'을 설정하고 그에 인물을 비춰낸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 글은 시대적 흐름보다 작품우선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현실인식을 문학적으로 굴절해낸 서술자의 작중상황 서술 및 인물에 대한 묘사, 설명을 근거로 인물을 살피려 한다. 작가와 작중인물 사이에서 긴장을 조절하고 효과를 불어넣으며 서술을 주도하는 서술자는 작중인물의 이미지나 행위, 사고를 형상화한다. 즉 인물에 대해 서술하면서 "자아를 속박하는 현실에 과감히 저항하려는 작가 정신 및 치열한 현실 인식"과 "작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제모순과 부당한 억압의 근본원인이 주로 어떤 인물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비판되며 고발되는가"¹⁾를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에 본고는 동아시아담론을 빌어 인물 이미지와 자아의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마련하려 한다.

*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조교수

1) 민현기, 「한국 근대소설과 민족현실」, 문학과 지성사, 1989, P.96.

물론 한창 논의가 진행중인 담론을 문학연구에 적용하는 일에는 위험이 뒤따른다. 문명비판적 거대담론으로 인물론 같은 미시적 연구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동아시아담론은 '근대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더불어 '근대인'의 성격에 대한 비판의 논거도 제공해준다고 본다. 그로부터 '근대'를 살아온 '동아시아인'의 성격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근대화'에 대해 살펴보자. 주지하듯 '근대화'에 대한 서구학자들의 정의는 (ㄱ)자립지속적 경제성장, (ㄴ)정치적 공중참여, (ㄷ)세속적, 합리적 문화규범 확산, (ㄹ)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이동 가능성 및 자유 등 제한된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²⁾ 이는 자신들이 정의한 개념으로 세계를 보편화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로어(Robert Lauer)의 말처럼 "속히 서구처럼 되면 될수록 인류는 평화와 안정을 즐기게 될 것"이란 언급이 그렇다.³⁾

명치유신 이래 일본은 스스로를 서양에 투영하여 '서양=물질문명=근대화'이라는 등식을 마련하고⁴⁾ 이에 동아시아를 편입시키려 강제했다. 군대와 학교의 제도이식이나 법률체계의 확립 등 그들이 한국에서 벌인 '근대화'는 서양에서 배워온 그대로였다.⁵⁾ 일제치하란 일본의 모습으로 한국을 지배한 서구제국주의의 모순이 증폭된 현상이었으며 그로부터의 폐단은 식민지 한국에서 유독 심했다.

동아시아담론은 이런 '근대화'의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론을 원용한다. 우선 서양적 언설과 문화적 아이덴티티 논의에 잠재된 이항대립적 구조에서 벗어나 '주체', '사회(적인 것)'를 탈중심화, 탈본질화하려고 하고자 한다.⁶⁾ 서구적 과학, 기술과 문명, 발전의 원리가 아무리 탁월해도 동아시아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리라 보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에서 '동아시아적인 것'을 부당하게 평가절하하고 부정적으로 착색한 이성중심주의, 서구중심주의는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일 뿐이라 본다. 이는 동아시아인들을 주변부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 제국주의적 논리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주체로 인식하기 위함이다.⁷⁾⁸⁾ 이 위에 문화에는 민족마다의 원형이 있으므로⁹⁾ 높낮이와 차이가 있는게 아니라 향유주체에 따라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근자에는 특히 동아시아적 전통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되면서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¹⁰⁾ 서구적인 것, 강대국의 문화만이 우월하고 절대적이며 선하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동아시아담론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異說이 많다. 김광익은 문화적 동질성과 역사적

2) 김경동 외, 「근대화」, 서울대 출판부, 1982, P.7.

3) 김경동 외, 위의 책, P.17에서 재인용.

4) 加藤周一 외 저, 김진만 역, 「日本文化의 숨은 形」, 1995, 소화.

5) 일본이 '아시아'란 용어를 접한 것도 토쿠가와 시대에 서양상인들을 통해 수입된 서양 지리서적을 통해서였으므로 '아시아像'이란 서양과의 접촉에서 생겨난 서양의 산물이었다.(함동주, 앞의 논문, PP.73~74.)

6) 시마무라 다카노리, 성수정 역, 문화연구와 일본. 동아시아의 과제(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 비평」 창간호, 한림대 출판부, 1998), PP.110~111.

7) 일찌기 정약용은 "제각기 타고난 바탕이 다르거늘 어찌 남을 따라 나를 버리겠는가."하고 묻고 "中國이란 어디를 中이라 하고 東은 어디를 기준으로 東이라 하는지 모를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 事大主義를 배격하고 중국에 대해 당당한 태도를 갖도록 충고했다.(與猶堂全書 21권, 奇兒學淵.)

8) 이는 아시아의 낙후성 내지 停滯性的의 원인을 아시아문화에서 찾던 마르크스나 베버의 논의를 뒤집은 것이다.(김광익, 앞의 논문, PP.164~169.)

9) 김용운, '한·중·일의 원형과 미래'('포럼 21', 1994년 여름호), PP.9~18.

10) 두 웨이밍, '유가 철학과 현대화'(정문길 외 엮음,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 지성사, 1996) PP.333~390.

필연성, 그리고 당위성에 대한 담론 등을 짚는다. 그 내용은 신유학 전통, 한자 문화, 자연과 인간의 일체화, 세계에 대한 유기체적 사고, 공동체 윤리, 순환적 사고방식, 相生의 원리라 설명한다.¹¹⁾ 다른 견해는 이를 유교적 윤리관이 전제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이성과 감성의 '조화'라고 부른다. '조화론적 관념'은 상호포용을 중요한 사회적 덕목으로 강조함으로써 和解와 共生の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자기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외래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¹²⁾ 그러나 동아시아담론의 개념과 발생원인에 대한 비판, 비판해야 할 대상, 인식과 실천의 주체 등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무성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좀 더 미시적 차원에서 개별 문화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그 실제적 적용을 시험해야 한다.¹³⁾ 본고는 그런 시도의 하나이고자 한다.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한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한다. 그동안의 인물연구는 대체로 한국인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오늘날의 요구를 내세워 작가가 저항적인 인물을 그리지 않았다고 唾罵하거나, 작중인물의 성격이 환경에 의해 결정됐을 뿐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이다.¹⁴⁾ 그러나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설작품에서도 인간은 상대적 존재다. 따라서 문호개방 이래 체험한 '외국인'과의 갈등 내지 관계변화는 한국인의 존재의미와 자아의식을 드러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특히 개화기 소설 이래 일제치하의 작품들에 그려진 '외국인'은 한국인과의 갈등이나 관계변화는 물론, 사회 변동과 가치관의 변화를 암시하는 존재이다.

위와 같은 전제 아래 본고는 개화기 이후 일제시대에 발표된 중·단편소설 중 '외국인' 이미지가 두드러진 작품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2. 인물이미지 분석

(1) 서술에 나타난 시대이념

결코 우연치 않게 개화기 이래의 한국현대소설에는 시대의 흐름에 대한 서술이 곳곳에 나타난다. 경우에 따라 그것은 진행중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해보이는, 다소 엉뚱한 작가의 언술로도 보인다. 귀족의 아이를 뺨 여학생 이야기가 중심인 「弱한 者의 슬픔」에서는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여겨지기 때문이다.

(ㄱ)「때」도 달라졌다. 십 년 동안 평화로 지낸 지구는 오스트리아 황자(皇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러시아

11) 이 위에 고병익은 '교육과 지식의 강조', '절약과 근면의 강조'를, 두 웨이밍은 '군체적 기업발전', '경제에서의 관민합작'을 추가한다.(정문길 외, 앞의 책), P.34, P.383.

12) 이런 결론은 한국의한백연구재단과 중국의 미래연구회, 일본의 덴츠연구소가 공동으로 한 · 중 · 일 3국의 30세-45세의 지식인 3백명을 대상으로 동양문명의 특징에 대해 묻는 설문지를 돌리고 각국의 동양관련 학자가 참여하여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유교적 가치관', '조화론적 사상', '인간관계의 중시' 등을 동양문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정영국, '탈근대세계와 동양문명-한국보고서'(한백연구재단, 「포럼21」, 1995년 가을·겨울 통합호), PP.102~105.)

13) 정재서, '동아시아 문화, 그 보편가치화의 문제'(정재서 편저, 「동아시아 연구-글쓰기에서 담론까지」, 살림, 1999), P.191.

14) 광 근, 「일제하의 한국문학 연구」, 집문당, 1986, PP.181~197.

가 동원을 한다 도이치가 싸움을 하련다. 잉글리쉬가 어뭇다 프랑스가 어뭇다, 매일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 가득 가득 차게 되었다.(「弱한 者の 슬픔」)

(L) 그리하여 한 나라와 나라가, 서로 다투는 것은, 結局 物욕에 사람의 마음이 가리웠기 때문이 아니오이까. 그리하여, 弱肉強食의 大原則에 따라, 世界萬國이, 干戈로써 서로 對하게 된 것이 즉 구주대전외의다그려.(「標本室의 靑개구리」)

이러한 대목이 주로 심리적 측면에 주목하는 이상의 「날개」에서조차 나타나는 터라 전혀 우연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19世紀는 될 수 있거든 封鎖하여 버리오. 도스토예프스키의 精神이란 자칫하면 浪費일 것 같소. 유고를 佛蘭西의 빵 한 조각이라고는 누가 그랬는지 至言인 듯 싶소.

위와 같은 서술이 작중상황이나 인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명쾌하게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이는 일단 현실세계와 작중세계 사이의 긴장이 빚어낸 불가피한 서술로 보인다. 즉, 현실을 작중세계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작중세계의 사실성을 높이려는 두가지 목적을 도모하는 장치로 보인다. 서술에는 작가와 작중인물 양자의 시각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으므로 작중상황 및 작중인물의 행위, 사고에 대한 서술에는 당대의 현실적 문제의식이나 고뇌가 표현될 수 있다고 본다.

(2) 작중인물과 시대의식

인물은 단순히 감각적 이미지만이 아니라 갈등이나 관계변화의 원인이나 양상, 결과 등을 통해 주제를 형성해가는 존재다. 작중인물에 대한 단편적 묘사나 설명만으로 그 성격을 드러내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흔히 보는 인물론처럼 일정한 유형이 있어 그에 맞는 행위나 사고만 하는 것으로 서술되지도 않는다. 때로는 파편처럼 보이는 인물이미지가 플롯 구성과 주제 劃定에 주요단서가 될 수 있으며, 시대상황을 재현해낸 경우엔 더구나 이념과 사회분위기를 형상화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묘사나 설명이 동원된다.

작중인물은 선형적 정체성을 부여받은 존재라기보다 서술자에 의해 서술된 이미지와 행위와 사고를 통해 성격이 형성되고 존재의미가 확정되는 존재다. 그런데 3인칭인 경우에는 서술자가 서술을 이끌어간다는 점이 확인하지만, 1인칭소설인 경우 작중인물의 진술이나 독백을 서술이라고 볼 수 있느냐가 문제다. 하지만 「날개」 같은 1인칭소설조차 세상을 바라보고 진술하는 관점이 중층적인 경우가 많다. 이는 서술자가 이야기 자체와 그에 대한 논설을 동시에 주관하기 때문이다.¹⁵⁾ 따라서 시점에 구애되어 작중인물의 영역을 나누고 인물의 이미지나 행위, 사고의 내용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1인칭 주인공의 진술이나 독백까지를 넓은 의미의 서술에 포함시키는 것이 인물의 이미지와 자아의식 구명에 효율적이다.

현진건의 「故郷」에 등장하는 고향을 잃고 외국을 떠돌다 귀향한 사내에 대한 묘사가 그런 예다.

15) 프란츠 슈탄첼 저, 안삼환 역, 「소설형식의 기본유형」, 탐구당, 1983, PP.35~49.

두루막 격으로 「기모노」를 들렀고 그 안에선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보이며 아래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유지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갈색 필욕으로 지은 것이었다. 그리고 발은 감발을 하였는데 짚신을 신었고 「고부가리」로 짚은 머리엔 모자도 쓰지않았다.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미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단지 외모, 감각적 묘사가 아니며 당대적 상황에 대한 통찰과 삶에 대한 이해를 드러낸다. 일어, 중국어를 구사하는 사내의 외모는 서간도, 안동현으로 일본 구주, 대판으로 떠돌아다니며 농사와 막노동에 한 내력과 관련돼 있다. 그렇듯 파편적인 삶을 살아온 사내의 고향은 그의 노래에서처럼 “벼섬이나 나던 전토=신작로, 말마디나 하던 친구=감옥소, 담배캐나 떠는 노인=공동묘지, 인물이나 좋은 계집=유곽”의 등식으로 파괴되었음이 드러난다.

그를 둘러싼 ‘외국인’ -일본인과 중국인에 대한 “엄지와 굳지 손가락으로 짧게 끊은 곳곳한 윗수염을 비비는”, 혹은 “기름끼인 뚜우한 얼굴” 등의 묘사는 불행했던 역사의 기간에 이 나라에 이입해 온 저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를 단적으로 시사해주는 표현이다.¹⁶⁾

본고는 이처럼 서술자가 서술해보인 한국인과 ‘외국인’의 갈등 및 관계변화에서 ‘외국인’ 이미지와 한국인의 자아의식을 파악하고, 다시 이를 근거로 서구중심의 상상적 폭력이 만들어낸 허구적 ‘근대화’에 대해 비판하려 한다.¹⁷⁾¹⁸⁾ 즉, ‘외국인’의 이미지와¹⁹⁾ 한국인의 자아의식이라는 두 측면으로 ‘근대화’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대체로 ‘외국인’은 ‘서구화=문명화=善’이라는 등식을 체득한 신기하고 효율적인 문명을 갖춘 존재들로 간주됐다. 이에 비해 한국인은 서구문명을 무조건 수용하면서 스스로의 전통은 버리고 고쳐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자아의식의 분열과 자기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해야 했다.

「故郷」의 사내 역시 영남없이 동아시아의 시대상황 및 가치의 변화를 드러내는 존재다. 사내는 고향을 떠나 간도와 일본으로 떠돌아다니고 사랑하던 여인은 부모에 의해 유곽에 팔려갔다가 폐인이 돼서 돌아온다. ‘근대화’를 내세운 일제의 힘이 ‘고향’에 침입하면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이성과 감성의 조화공간이 파괴되고 자아정체성을 상실했던 것이다. 요컨대 식민지 상황에 놓인 황막한 삶을 축약해낸 「故郷」은 반제국주의를 조명하는 주요 대상작품인 것이다.²⁰⁾

16) 한상무, 「현진건 소설의 역사 의식 형성」(서종택 외, 한국현대소설연구, 새문사, 1990), P.189.

17) 필연적으로 동아시아담론은 근대화의 비판에 나서게 된다.(성민엽, 「같은 것과 다른 것 :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정재서 편저, 앞의 책), P.226.)

18) 김광역, 「동아시아 담론의 실체—그 분석과 해석」(정재서 편저, 앞의 책), P.163.

19) 이를 일반적 소설론에서처럼 인물의 지각내용이라고만 보면(김화영, 「소설이란 무엇인가」, 문학사상사, 1986, P.277) 서술자의 지위나 관점을 무시할 우려가 있으므로 작가와 작중인물의 인식이 상호간섭적으로 녹아들어 작중상황을 그려내는 서술로 보고자 한다.

20) 이재선, 「한국문학의 원근법」, 민음사, 1996, P.450.

3. 외국인 이미지와 한국인의 자아의식

(1) '외국인' 이미지의 전개

정의대로라면 '근대인'은 역사발전 법칙에 따라 서로 평등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존재다. 우리의 '근대화'는 '서구'로 지칭되는 외국과의 접촉을 통해서야 가능했음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근대'를 가져다준 '외국인'은 한국보다 월등한 기술과 힘, 권력, 돈을 지녔음은 분명하지만 과연 그들이 한국인을 동등한 대화상대로 대해줬는지는 회의적이다.

본고에서 문제삼으려는 바는 '외국인' 이미지가 작중상황에서 어떻게 그려졌는가다. 흔히 그들은 서술상황에서 '주변부 인물', '부수적 인물', '배경적 인물', 심지어는 풍경 따위 배경처럼 그려져 있다.

그러나 작품의 주제를 형성해가는 의미구조 면에서 보면 그들의 역량이나 역할은 배경에만 머물지 않았다. 본고는 이를 '근대화' 상황에서 작중인물이 겪는 갈등 및 관계변화와 결부지어 '외국인'들의 '힘'과 '돈', '지배', '수탈', 그리고 그들이 누린 '풍요'를 이미지의 범주로 설정하려 한다.

가. '힘'의 이미지 : 「血의 淚」에서의 일본인

일찌기 이재선은 「개화기소설연구」에서 일본인상에 대해 “劫奪의 危難에 빠진 紅蓮을 구해주는 것도 日本巡查요, 殺人嫌疑를 받은 李郎을 放免시켜 日本留學을 알선해주는 사람도 日本公使다.”²¹⁾라고 언급한 바 있다. '외국인' 이미지와 한국인의 몰주체성을 논한 그 말처럼 「玉蓮堂」등 신소설 전반에 등장하는 일본인은 모두 보호자나 휴머니스트의 전형이다.²²⁾²³⁾

그러한 서술의 일관성 아래 「血의 淚」에서도 일본인 간호부, 군의관은 물론, 헌병까지가 모두 선한 보호자로 그려진다. 심지어 「血의 淚」에서는 옥련이 일본인의 총알에 몸을 다친 일까지 미화하는 것이다.

군의 말이 만일 청인의 철환을 맞았으면 철환에 독한 약이 섞인지라 맞은 후에 하룻밤을 지냈으면 독기가 온몸에 많이 퍼질 터이나, 옥련이 맞은 철환은 일인의 철환이라 치료하기 대단히 쉽다 하더니…….

“청·일전쟁”, 혹은 “일인의 탄환”은 멀쩡한 양반집 규수를 외국으로 떠돌게 만들 정도로 강한 힘을 행사한다. 그것은 수탈받던 조선민중들의 삶과는 무관한 유학이었으며 마치 별세계 여행과도 같은 그 도정에 주인공은 무주체적으로 참여한다.²⁴⁾ 이렇듯 전통적 '조화'와 서구적 '근대화'가 주도한 개화에서의 '조화'는 방법부터 다르다. 개화의 치명적인 결함은 조선과 외국과의 잘못된 관계설

21) 이재선, 「개화기소설연구」, 일조각, 1985, P.307.

22) 이재선, 앞의 책, PP.307~308.

23) 사무엘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서 “상이한 문명의 나라들과의 교류가 잦아질수록 문명 내부의 편승경향은 강화되게 마련”이라 했다. 서구에 비해 일본·중이 문화적 유사성 때문에 가깝게 여겨진 감이 있으나 日帝는 결국 서구의 다른 모습이었다.

24) 서종택, 「한국근대소설의 구조」, 시문학사, 1985, P.37.

정에서 기인한 것²⁵⁾이었다. 주종관계를 맺은 것도 아닌데도 ‘외국인’은 대화와 협조가 아닌 일방적인 복종과 순응을 요구하는 것이다.

「血의 淚」에는 ‘신문명’으로 상징되는 외국은 마치 우리 고전소설에서의 하늘나라처럼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공간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방식의 개화는 전시대에 영웅소설이 순환적이고 관념적인 전망에 지배받던 방식의 답습에 불과했다. 따라서 그로부터 새시대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 ‘매춘’과 ‘돈’의 이미지 : 「감자」에서의 중국인

「감자」는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性を 파는 인물과 사는 인물을 형상화하여 자본화에 따른 인간의 도구화, 예속화, 비인간화를 다룬다. 그러한 변화는 “가난은 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있”게 성장함, “예전 선비의 엄한 규율”, “엄한 규율”,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기쁨” 등 ‘조화’의 덕목이 파괴된 후 벌어진 일들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외국인’ 왕서방은 ‘돈’으로 ‘매춘’을 하는 자다. 주인공 복녀가 매춘에 눈을 뜬 시점에서 등장한 그는 재력을 지니고 도덕관념을 도외시하고 생존에만 매달리는 복녀에게 性を 산다. 그는 가세가 기울어 어린나이에 팔려가고, 재력이 없기에 극도의 궁핍을 경험하다가 모처럼 “삶의 비결”인 성의 상품화에 나선 보람을 느끼게 해준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끝내 복녀를 죽이고 사체마저 돈으로 처리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핵심가치인 화폐의 위력으로 성을 상품화하고 주검까지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다 할 묘사나 설명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우직하고 순진하면서도 냉철한 그의 이미지는 충분히 드러난다. “눈만 멀쩡멀쩡”, “눈만 정처없이 두룩두룩”,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어”에서 보듯 그는 다만 ‘돈’으로 ‘性を 사는’ 자일 뿐이다. 정절의 도덕과 부부관계 등 전래의 ‘조화론적 관념’을 도외시하는 그는 교환의 수단과 목적만 있을 뿐, 대화를 통해 인정을 나누고 마음을 주고받는 등의 인간적 면모를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그려진다.

다. ‘지배’와 ‘수탈’의 이미지 : 「脫出記」에서의 중국인, 「萬歲前」, 「떨어진 팔」에서의 일본인

한국인들의 파탄과 전락이 심할수록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더욱 강하게 ‘지배’와 ‘수탈’하는 자의 이미지로 그려진다. 「脫出記」에 등장하는 중국인 역시 한국인을 ‘지배’하고 ‘수탈’한다.

한국인들이 만주로 찾아가는 것은 일체의 수탈이 원인이었다. 역사에서 보면, 상업자본과 금융자본, 산업자본으로 침투해온 일본은 동양척식회사를 통한 토지조사사업으로 농민들의 점유권과 경작권을 박탈, 한국인을 소작농으로 전락시키거나 농토로부터 유리시켰다.²⁶⁾ 그러나 한국인들이 일체의 감언이설에 속아 모처럼의 희망을 안고 찾아가는 만주는 중국인 지주들이 점유하고 있어 농사지를 땅마저 얻기 어렵다. 그곳은 고향에서 누리던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화해나 共生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공간이다.

25) 나병철,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문예출판사, 1998, P.305.

26) 유봉철, 「일제하의 국민생활 수준」(조기준 외, 「일제하의 민족생활사」, 1971, 민중서관), PP.401~486.

나는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구하였다. 빈 땅은 없었다. 돈을 주고 사기 전에는 한 평의 땅이나마 손에 넣을 수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인(支那人)의 밭을 도조나 타조로 얻어야 된다. 일년내 중국사람에게서 양식을 꾸어 먹고 도조나 타조를 얻는대야 일년 양식 빛도 못될 것이고 또 나같은 시로또(素人)에게는 밭을 주지 않았다.

주인공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생소한 산천”의 “생소한 사람들”인 중국인 산임자나 중국경찰은 그에게 그럴 여지를 허여하지 않는다. “허위와 요사와 표독(標毒)과 게으른 자를 옹호하는 제도”, 즉 “식민지 정책의 모순”와 “일제자본시장의 경제침략으로 인한 제도”²⁷⁾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끝내 이념투쟁에 나서게 만든다.

그와 유사한 간도의 체험을 담은 소설²⁸⁾ 중 「北國의 女人」은 비극성이 유독 두드러진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중국인 지주가 자행하는 ‘지배’와 ‘수탈’은 한국인의 생존여건을 돌아보지 않는다. 소작인에게 도지를 주고 장리쌀을 꿰준 중국인 왕가는 곡식을 거두기도 전에 작료를 재촉한다. 그로 인해 한국인 소작인은 늘어난 채무를 짊어지고도 다시 고리대금업자를 찾아나서야하는 악순환에 시달린다. 더구나 중국인 왕가는 남편을 죽인 후 아내를 살인범으로 몰아 억울한 옥살이까지 시킴으로써 인간적 의리나 인정마저 짓밟는다.

이러한 상황은 조명희나 한병도, 이서구의 작품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일제의 억압과 수탈에 못이겨 찾아간 간도나 만주는 다시 중국인의 압박에 못이겨 자진하거나 되돌아와야하는 제2의 갈등의 현상이었다.²⁹⁾

더욱 본격적인 ‘외국인’의 ‘지배’와 ‘수탈’은 일본인들로부터도 가해져왔다. 염상섭의 「萬歲前」이 일본인의 욕성을 담아 그런 실상을 그려냈다.

(ㄱ)하하하. 나도 맨 처음에—그건 제주도에서 모집하여 갔지만—그때에 오백 명 모아다 주고 실살고로 남긴 것이 천 원이었고, 둘째번에는 올가을에 팔백 명이나 북해도 죽미탄광(尾尾炭鑛)에 보내고, 이천 원 돈이 들어왔다우.

(ㄴ)왜 남선지방에 옹모자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작은고 하니 이 남쪽은 내지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북으로 쫓겨서 만주로 기어들어가거나 남으로 현해탄을 건너서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 밖에 없는데, 누구나 그늘보다는 양지가 좋으니까 요보들 생각에도 일년 열두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주린 배를 채우기는 고사하고 보릿고개에는 시래기죽으로 부증이 나서 뉘질 지경인 바에야 변화한 동경 대판에 가서 흥청망청 살아보겠다는 요량이거던.

한국 노동자들을 모집하여 일본 각지의 탄광과 공장으로 보낸 일본인 노동브로커의 대화다. (ㄱ)에서 보듯 이들은 일본회사와 공모하여 한국인들을 “붙들어가는” 일이 아주 쉽다고 교활하게 떠벌린다. 그러나 이들의 선전이 실상과 매우 다르다는 점은 (ㄴ)에서의 “변화한 동경 대판에 가서 흥청망청 살아보겠다는 요량”이란 빈정거림에서 짐작할 수 있다.

27) 윤홍로, 「한국근대소설연구」, 일조각, 1992, P.239.

28) 민현기 편, 「한국유이민 소설선집」, 계명대출판부, 1989.

29)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 비평사, 1990, P.269.

당시 일본인들은 총독부나 경찰, 헌병의 도움을 받아 한국사회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총독부는 거대한 기업을 '경영' 하듯 식민지를 통치했다.³⁰⁾

이어지는 서술에서 이들과 한국인의 관계는 “그들이 조선에 오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경멸할 수 있다는 이유와 원인을 많이 수집하였다는 의미 밖에 안되는 것이다.”라고 설명된다. 것처럼 경멸했기 때문에 별다른 죄의식없이 ‘지배’와 ‘수탈’을 자행했던 것이다.

‘외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지배’와 ‘수탈’이 더 극명하게 그려진 작품은 외국현지의 노동체험이 담긴 소설이다. 김병제가 1930년 「조선지광」에 발표한 「떨어진 팔」의 주인공은 자신이 일본인에게 구매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 공장 주인은 가장 험한 값으로 나를 사들인 것이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타면서도 신 한 켤레를 사 신지 못하고 떠나올 때 입은 옷을 두덕이 때가 앉도록 그대로 입은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가장 험한 값으로” 사들인 노동자가 오른팔을 잃자 일본인 공장주인은 보상을 해주기보다 어떻게든 고국으로 돌려보낼 궁리에만 골몰한다. 그것은 ‘이민노동소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긴 하지만 국권을 상실하고 문명마저 뒤진 식민지 백성은 ‘지배’와 ‘수탈’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산업화, 기계화, 자본주의화 진행과정에서 反共生, 反人間을 당연시하는 ‘지배’와 ‘수탈’이 서슴없이 자행됐다.

라. '풍요'의 이미지 : 「소년직공」과 「痲叔」에서의 일본인

1929년 「조선지광」에 발표된 이명식의 「소년직공」에는 동경 교외의 공장에 가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한국인 소년들의 처지가 그려져 있다. 생명이 아니라 한낱 기계부속품 정도로 취급받는 한국인 소년들은 언제 어떻게 불구가 되어 공장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짓눌린 채 살아간다. 하지만 사고가 날 경우 일본인 책임자가 궁금해하는 것은 사상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다. 만일 조선인, 그 중에서도 소년견습공이 사고를 당했다면 “웅 그러면” 정도의 반응만 보일 뿐이다.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 노동자들의 이처럼 참담한 실정과 대조적으로 한국에 건너온 일본인들은 손쉽게 ‘풍요’를 얻는다. 주인공의 고향 의주에 이주해온 일본인들은 “헌병말 마부(馬夫)”처럼 비천한 직업인으로 출발해도 이내 “가장 호화로이 지내는” 부자가 된다.

처음 조선으로 건너갈 때에는 헌병말 마부(馬夫)로 갔던 일본 사람이 지금은 복재 밀 이층집에서 가장 호화로이 지내는—갑동 아버지가 일해주는 일본집 주인의 궁상섞인 얼굴에 값비싼 의복을 입은 꼴도 떠오른다.

채만식의 「痲叔」에도 일본까지 가서 대학교육을 받고도 제대로 밥벌이도 못하는 “痲叔”에 비해 일본인들은 비록 거리행상을 할 망정 재력을 지니고 있다.

30) 임종국, 「일제하 인력·물자 수탈사」(안병직 외, 「변혁시대의 한국사」, 동평사, 1980), PP.232~252.

역사에서 보면, 총독부는 1919년 이래 産米증산정책, 면화증산정책, 南綿北羊정책, 광산개발정책 등을 펼쳐갔다. 그러면서도 일본에서 시행된 중요산업통제법을 한국에서는 시행하지 않아 독점자본의 개인자본 확충을 가능케했고 공장법마저 시행되지 않아 어린이를 포함한 인력착취가 무제한 가능했다. 일본인들은 총독부와 동양척식회사의 비호 아래 대지주, 혹은 대자본가로서 부를 축적해갈 수 있었는데,³¹⁾ 그러한 ‘풍요’는 식민지 백성의 희생에서 얻은 것이었다. 한국인들은 쌀 대신 만주의 좁쌀로 연명하고 가을에 헐값으로 쌀을 팔아 수세나 비료대, 고리대를 갚아야하는 처지였던 것이다.

계제에 마침 또 좋은 자리가 있었고요. 미네상이라고 미쓰꼬시 앞에서 바나나 다다끼우리(投資)를 하는 인데 사람이 펍 좋아요.

우리집 다이쇼(主人)도 잘 알고 허는데, 그 이가 늘 날더러 최선 오감상하구 살았으면 좋겠다고, 중매서 달라고 그래냈어요.

돈을 모아 둔 게 없어도 다아 벌어먹고 살 만하니까 그런 사람 만나서 살면 아주머니도 신세 편할 게 아니냐구요?

이 작품에서의 풍자의 대상이 가치관이 비뚤어진 한국인이라는 논의에도 일리는 있다.³²⁾ 당시 지식인들 대다수가 나라나 백성이야 어찌되건 개인적 이익의 추구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원화된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가 풍자란 점에서 우선적 대상은 식민통치 아래 유족한 삶을 누리던 일본인들이다. “돈을 모아 둔 게 없어도 다아 벌어먹고 살 만하니까”라는 서술에서 보듯 노력과 ‘풍요’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었다.³³⁾ 「痴叔」은 것처럼 한국땅에서 ‘풍요’를 누리는 일본인들의 처지를 풍자의 대상으로 삼는다.

위에서 보듯 ‘근대화’ 과정에서의 ‘외국인’은 갈등과 관계변화의 원천—‘힘’과 ‘돈’을 지니고 ‘수탈’과 ‘지배’를 자행하여 ‘풍요’를 누리는 존재로 서술돼 있다. ‘근대’란 중세적,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구체적, 현실적 수단이나 방법, 힘, 재력, 제도 따위가 중시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건의 맥락, 즉 존재의미로 보건대 ‘외국인’들은 갈등의 전개와 관계변화의 실제적인 구심점이었다.

만일 그들 서구인이 ‘근대화’에 기여하는 ‘근대인’이었다면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유화적 태도로 재화와 제도를 공유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서술에서 보듯 그들은 부(자본)의 소유(규모)에 의해서 열과 범주를 만든 존재였다. 더구나 식민통치에 필요한 권력이 행사되는 식민지사회에서 그들은 전근대적 신분제와 흡사한 계급구조를 만든 존재들이었고, 그에 따라 한국인은 상대적 열위에 놓여야 했음을 서술자는 놓치지 않고 있다.

31) 김영모, ‘식민지시대 한국의 사회계층’(안병직 외, 앞의 책), PP.208~218.

32) 강태근, 「한국현대소설의 풍자」, 삼지원, 1992, P.115.

33) 채만식은 성숙한 일본 자본주의의 이식이 초기 자본주의 단계에 놓인 한국의 민족자본을 어떻게 침탈하는지, 그 추세가 어떻게 흐를지를 내다본 작가다. 그런 인식이 서술을 통해 나타났을 것이다.(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P.184.

(2) 한국인의 자아의식

위와 같은 '외국인'의 이미지는 한국인이 자아의식의 형성에 절대적으로 기여한다. 자아는 타자와의 비교에 의한 반성에서³⁴⁾ 자아각성과 자아발견을 이루어낸다고 보기 때문이다.³⁵⁾ 그러한 예는 외국인이나 외국문물을 접촉한 인물들- '유학생'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거니와, 그들은 대단히 건강하거나 패퇴적인 극단적 자아의식을 지니고 있다.

염상섭의 「除夜」에는 남의 애를 배고 시집을 갔다가 소박을 맞은 방탕한 신여성이 등장한다. 현진건의 「貧妻」에는 「狂風에 나부끼는 버들葉 모양으로 오늘은 支那, 來日은 日本으로 굴러 다니다가 金錢의 타으로 知識의 바다물도 흠뻑 마셔보지 못하고 半겨들층이가 되어 집에 돌아오고 만」 주인공이 그려져 있으며, 이기영의 「故郷」 등 다른 작품 다수에도 엇비슷한 이미지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그러한 '유학생'들의 형상화야말로 한국인들이 외부충격으로부터 이루어낸 자아각성이나 자아발견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반증하는 서술이다. 서술은 개화기소설에서는 오로지 선망의 대상이던 '유학생'을 '문제적 개인'으로 다루면서 당대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과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그것은 이전의 전통이나 문화가 온전히 유지되지 못하는 가운데 외부로부터 유입된 근대적 가치관이 오히려 조화를 파괴하는 데 대한 불만과 비판이다.

가혹한 식민통치가 전개되는 상황에서는 삶의 목표가 오로지 생존수단³⁶⁾으로만 여겨진다. 「감자」에서는 당대 사회의 갈등과 관계변화의 중심축이 '돈'과 '매춘'으로 설정된다. 그런 환경에서 복녀는 왕서방 덕에 빈민굴 안에서 부자가 된 것을 스스로 대견해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하지만 그런 복녀를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그려내는 서술자의 시각에서 비록 부정적이고 모멸적이지만 반성적인 자아의식의 맹아가 엿보인다.³⁷⁾ "主體의인 自我認識의 힘은 부단히 外的 客觀物을 부정함에서 획득"되고, "覺醒은 지식, 행동 등의 통일 바탕을 마련하며 當爲가 存在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한다."³⁸⁾

부정이나 반성은 자아각성을 거쳐 자아발견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 「脫出記」의 주인공이 자신의 경험이 "어떤 험악한 제도" 때문이며 자신은 그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아발견에 해당한다.

우리는 여태까지 속아 살았다. 포악하고 허위스럽고 요사한 무리를 용납하고 옹호하는 세상인 것을 참으로 몰랐다. 우리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의식치 못하였을 것이다. 그네들은 이러한 세상의 분위기에 취하였었다. 나도 이때까지 취하였었다. 우리는 우리로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험악한 제도의 희생자로서 살아왔었다.

34) "나는 돌아 봄으로써(in reflection) 인간 존재로서(as the human being that I am)의 나 자신을 이해한다." (Edmond Husserl, trans. W. R. Boyce Gibbons, 'Ideas', George Allen & Unwin Ltd., London, 1969, PP.232~233.

35) 김정하, 「1920년대 소설의 작중인물 연구-자아의식의 변이와 자아정체성 추구에 의한 성격형성에 관하여」, 서강대학교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PP.8~9.

36) 리오 로윈델 지음, 윤준 옮김, 「문학과 인간의 이미지」, 종로서적, 1983, P.38.

37) 김정하, 위의 논문, PP. 54~58.

38) 윤홍로, 앞의 책, P.169.

“취하였었다.”의 반복은 이민족에 의해 지배되는 현실의 모순과 그 상황에 처한 자아각성을 스스로 촉구하는 언급이다. 또 “우리는 우리로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말은 장차 자아발견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암시하는 서술이다.

「떨어진 팔」에서도 팔을 잃는 주인공은 관례적 보상액보다도 턱없이 적은 돈을 받고도 그 사실을 모른다. 누구와도 의논하지 말고 빨리 귀국하라는 공장주인의 재촉의 진의를 알아챈 주인공은 동료들과 합심하여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제대로 보상을 받는다. “내가 대판 온 후로의 선물은 비록 나의 한 팔이 없어졌을망정 내가 공장노동자로서 몇몇한 체험을 하였다.”는 진술은 자아각성과 자아발견에 도달한 자아의식을 확연히 드러내준다.

이와 달리, 생존조차 힘든 현실에서는 자아의식을 갖는 자체를 사치로 여긴 인물들은 자신들의 존재기반이 식민정체과 외국인에 의한 물리력에 있다고 믿게 된다. 그런 한국인들은 일제말기에 이르자 “內鮮一體”와 “大國家主義”를 필연적 귀결로 여기며 스스로를 부정하는 “內地志向的” 사고에 빠진다. 「萬歲前」에서 일본인 흉내를 내는 헌병보조원과 역부, 그리고 「痴叔」에 등장하는 “나”가 그런 인물인데, 이들은 자아가 분열된 존재들이다.³⁹⁾

그에 비해 「萬歲前」의 주인공 이인화는 일본인들의 능력에 부딪치자 그러한 일본인들의 능력을 많은 조선사람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생각한다.⁴⁰⁾ 자아각성과 자아발견을 통해 현실상황을 꿰뚫어보고 존재의미를 깨닫고 상황을 타개할 명징한 자아의식을 갖게 된다.⁴¹⁾ 그러한 자아의식은 자아정체성의 회복으로 이어지는데, 자아정체성이란 동아시아적 고유가치—‘조화론적 관념’의 실현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

4. 동아시아담론에 의한 ‘근대화’ 비판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인이 체험한 내용은 서구문화의 우위와 우리문화의 상대적 열등하다는 점이었다. 그런 체험은 국제정세에 대한 사고를 비롯해 개인의 일상적 의식을 지배해왔다. 본고는 한국 현대소설에서의 ‘근대화’ 내지 ‘근대인’의 이미지와 자아의식이 무엇인가를 동아시아담론을 통해 묻는다.

굳이 사이드(Edward Said)가 「문화와 제국주의」에서 보여준 비판을 인용치 않더라도, 한국현대소설에 그려진 과학과 문명, 기술과 제도는 서구편향적이었다. 자본주의와 과학주의를 앞세운 서구적 이성주의, 합리주의는 ‘근대화=발전’이라는 등식에, 의해 동아시아적 가치—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조화를 부정하고 파괴했다. 일제의 태도는 동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전면부정이었으며⁴²⁾, 그

39) 일제치하 지식인들의 ‘조선인의 자아에 관한’ 글에서도 자아분열 징후가 보인다. 이광수의 「民族改造論」이나 최현배의 「朝鮮民族 更生의 道」에는 한국인의 장점에 대한 언급이 없지않지만 대체로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노출했다.(김재은,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이화여대 출판부, 1988, PP.23~164. 참조바람)

40) 유병석, 「염상섭 전반기 소설연구」, 아세아문화사, 1985, P.50.

41) 김화영, 앞의 책, P.247

42) 물론 ‘조화론적 관념’에 전제된 유교윤리가 불평등을 전제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그 불평등은 서구적 ‘근대화’에서의 계급적 서열화 내지 차별화와 다르다. 상층과 하층은 서로 보호와 배려, 존경과 복종을 주고 받는 것이 유교윤리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들이 주도한 ‘근대화’는 제국주의적 식민지배의 형식이었다. 그들은 아시아의 동질성, 아시아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양에 대응하는 ‘아시아주의’를 주창, 서양의 침략을 막아내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⁴³⁾, 스스로 동아시아를 ‘근대화’하는 지도자를 자처하여 동아시아, 특히 한국을 타자이자 ‘근대화’ 대상으로 삼았다.⁴⁴⁾

그러나 “脫亞入區”를 내걸고 서구를 모방한 그들의 ‘대동아공영론’은 이민족을 차별하고 수탈하는 정책이념이었다. ‘식민지 미화론’자들의 ‘근대화’ 예찬과는 달리 일제는 투자액의 몇 배를 한국에서 수탈해갔다. 일본에 자극받아 뒤늦게 ‘근대화’ 경쟁에 뛰어들던 중국 역시 일본과 유사한 논리를 취했다. 이민족을 억압하고 ‘지배’, ‘수탈’을 자행한 그들의 ‘근대화’는 정치, 경제 운용방식이나 기술문명 면에서는 앞서 있었지만 동아시아적 전통문화인 ‘조화론적 관념’을 무시하고 부정했다. 일본이나 중국은 그 자체가 동아시아적 모순이었으며 한국은 동아시아 모순의 집약지였다.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근대화’의 모순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ㄱ) ‘힘’과 ‘돈’ 따위 서구적 가치를 지닌 ‘외국인’들은 동아시아 전통문화인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조화를 파괴했다. 한국인은 인간적 情誼를 나누는 상대가 아니라 性이나 노동력 등 이른바 ‘근대화’ 과정의 교환가치로 취급받았다.

(ㄴ) ‘외국인’들은 ‘지배’와 ‘수탈’로 ‘풍요’를 누리는 반면, 한국인은 피지배, 피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했으며 한국인의 자아는 무시, 교란되었다. 이는 동아시아 공동번영과는 무관하게 서구평화의 ‘근대화’를 추구한 일본과 중국의 ‘자기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⁴⁵⁾때문이었다.

(ㄷ)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작품에서 「血의 淚」 외의 소설들은 비록 타자의 자극을 매개했을 망정 주체적 자아의식과 자기정체성 회복에 나서고자 한다. 그러므로 조화로운 인간관계에 역행한 한국에서의 ‘근대화’ 현실은 소설작품에서 되레 자아의식의 발달에 기여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은 그것이야말로 동아시아인으로서의 한국인이 ‘외국인’과의 접촉에서 얻은 소득이라 본다.

5. 잠정적 결론

우리 현대소설은 다른 어떤 예술 장르보다 민감한 시대인식 위에서 씌어졌으며, 그 시대인식을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현실적 모순으로 표현했다. 작품 내의 서술상황에 형상화된 인물은 개화기 이후의 일제치하에서 외국인이 중심이 된 가치체계와 그 가운데 놓인 한국인의 고뇌를 그리고 있다. 그것은 이 시대의 근대화를 의미하는 제도, 과학, 자본 등이 서구적 가치관과 기준에 의해 식민국 한국의 조화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근대화’의 도정에서 ‘외국인’은 중심적이고 주체적인 반면, 한국인은 주변적이고 소외된 이미지

43) 함동주, ‘명치기 아시아주의의 ‘아시아’ 像’ (『일본역사연구』 제5집, 1997), P.73.

44) 1920년대 일본에서 고토오, 후쿠다, 니토베, 야나이하라로 대표되는 이른바 ‘식민정책학’과 시라토리로 대표되는 ‘동양학’은 ‘오리엔탈리즘’의 이항대립적 구조에 도취되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를 他者로 설정한 후 ‘식민지의 근대화’를 추진했다.

45) 김경동 외, 앞의 책, P.8.

로 그려진다. '외국인' 이미지는 뚜렷한 묘사나 설명 없이 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의미구조 면에서는 오히려 주인공들의 욕망이나 행동, 사고를 통어하는 중심가치와 결부돼 있다. 그것은 그들이 서구편향적 가치관에 의해 '힘'과 '돈'을 앞세워 '지배'와 '수탈'을 자행하는 서열화된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국현대소설은 이를 비판하고 한국인의 자아의식 각성과 발견을 지향하면서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러한 자아정체성의 모색은 오늘날에도 정신대, 월남전, 미군기지촌 등을 다룬 작품에서 진지하게 이어지고 있다. 문체는 타자를 수용하면서도 주체성을 지키는 방법을 그 문학적 관점으로 수용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 더 깊은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